

# 손흥민, MLS 데뷔전...PK 유도 팀 패배 막아

### 이적 사흘 만에 LAFC 시카고전 후반 16분 교체 투입 1-2 상황서 빠른 역습으로 PK 이끌어...2-2 무승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가 로스앤젤레스(LA) FC 유니폼을 입고 MLS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을 집중 조명하며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흥민은 10일 오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저뷰의 시트릭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와 2025 MLS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LAFC의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1-1로 맞서던 후반 16분 투입됐다.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지난 7일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달러(약 369억원)에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이 이적 사흘 만에 MLS 데뷔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29분밖에 뛰지 않았지만 1-2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드니 부앙가가 넣은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LAFC의 2-2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경기 후 MLS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손흥민의 데뷔 소식으로 장식됐다.

MLS는 "강렬한 데뷔! 손흥민이 LAFC에 바로 영향을 끼쳤다"는 제목과 함께 "MLS에서 손흥민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첫 문장으로 이날 손흥민의 경기 내용과 경기장 분위기 등을 소개했다.

MLS는 "LAFC에 입단한 지 사흘 만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가 시카고의 만원 관중 앞에서 데뷔전을 치렀다"면서 "눈 깜짝할 새에 바람의 도시 시카고로 향했고, 경기 하루 전 출전 허가를 받아 이날 후반 16분 교체 투입됐다"고 손흥민의 첫 출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팀이 1-2로 뒤지고 있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면서 "특유의 돌파력을 선보이며 시카고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에게 페널티킥을 얻어내 동료 부앙가가 페널티킥으로 동점 골을 넣도록 도왔다"고 이날 활약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승점 3을 얻지 못해 조금 실망스럽지만, 모두가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뷔전을 치러서 기쁘고, 곧 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정 경기임에도 이날 관중석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아시아 최고 축구 스타 손흥민에게 향하는 환호는 컸다.

손흥민은 "정말 즐거웠다"면서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적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이곳에 있는 게 정말 좋다"고 MLS 그라운드에서 첫발을 내디딘 소감을 밝혔다.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에서는 손흥민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LAFC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으로 몰다가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에게 밀려 넘어졌다.

이후 주심은 비디오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훌륭한 패스였고, 확실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확실한 페널티킥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록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친 손흥민에게 동료들도 엄지를 내세웠다.



로스앤젤레스(LA) FC의 손흥민이 10일 치른 시카고 파이어와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0-1로 뒤져 있던 전반 19분 코너킥 기회에서 헤딩으로 동점 골을 뽑았던 LAFC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그의 팬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 그가 20분, 30분 정도 뛰면서 우리 팀의 경기력을 바꾸고, 우리가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제공하는 걸 봤

을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그러고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데려온 것"이라며 "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LAFC는 17일 오전 8시 30분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선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오늘 30분 정도 뛰었고, 다음 주 경기에도 준비하고 있다. 동료들과 훈련을 통해 어떻게 나아질지 보겠다"면서 "다음 주에는 선발로 나서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100경기 '클린시트' 조현우 "더 많은 무실점 경기 만들 것"

### K리그 역대 '무실점 단독 5위' 기록 울산 새 사령탑 신태용 감독과 첫 승

K리그 100경기 '클린시트' (무실점)를 달성한 울산 HD 수문장 조현우는 새 사령탑 신태용 감독과 함께 더 많은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우는 지난 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 정규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 출전해 무실점을 기록하며 울산의 1-0 승리를 지켜냈다.

조현우는 제주의 유효슈팅 4개를 모두 막아내 신 감독의 울산 데뷔전 승리를 도왔다.

경기 뒤 조현우는 "K리그에서 처음으로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쁘다. 남은 경기들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연령별 대표팀도 이끈 바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울산 선수들 대부분에게 익숙한 지도자다.

특히 조현우에게 신 감독은 '은인'이나 마찬가지다.

조현우가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으로 확실하게 떠오른 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신 감독이 선발로 적극 기용하면서부터다.

그런 신 감독에게 조현우는 기분 좋은 첫 승리를 안기고 '개인 기록'도 챙겼다.

조현우는 이날 K리그1에서 7번째로 100경기 클린시트를 달성했다.

또 역대 K리그(1·2부 통산) 클린시트 순위에서 134개로 김용대 울산 골키퍼 코치를 제치고 단독 5위에 랭크됐다.

5월 2일 광주FC전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룬 무



울산HD의 골키퍼 조현우가 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 정규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대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실점이어서 기쁨은 더 크다.

조현우는 "개인 기록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100번째 클린시트를 달성하는 건 너무 어려웠다"면서 "기쁘면서도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에도 울산은 여전히 6위(승점 34)에 머물러 있다.

선두 전북 현대와 격차는 승점 23이나 된다.

사실상 우승은 불가능해졌다. 신 감독은 3위권 안에 들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ACL) 티켓을 따내는 걸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순위보다 중요한 건 K리그 3연패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바둑까지 내려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조현우는 "월드컵에서 함께 했던 감독님을 울산에서 다시 만나니까 7년 전이 떠올랐다. 감독님은 팀에 좋은 기운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지도자"라면서 "나를 비롯해 선수단 모두 감독님이 원하는 경기를 펼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영암·구례씨름단, 영동국악엑스포대회 '평정'

### 영암 단체전 1위·구례 2위

'전남씨름 남매'가 2025 민속씨름 영동국악엑스포장씨름대회 단체전 1·2위를 차지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사진)이 지난 7일 충북 영동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영동국악엑스포장씨름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이은수, 최정만, 최성환, 박성용, 남우혁, 조은호, 차민수를 내세운 영암군은 수원특례시청과의 남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4-3의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등극했다.

8강에서 구미시청을 누른 영암군은 4강에서는 정읍시청을 만나 결승행을 확정했다.

개인전에서도 영암군의 선전이 펼쳐졌다.

차민수(한라급)와 이동혁(소백급)이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전에서 차민수와 집안 싸움을 벌였던 최성환은 한라급 3위를 기록했다.



구례군은 여자부 단체전(김시우, 장정인, 이세미, 설윤아, 최희화, 선재림, 염하진)에서 준우승 팀이 됐다.

구례군은 안산시청과의 결승 맞대결에서 1-4로 지면서 2위를 기록했다.

매화급에 도전한 김시우와 선재림은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안군청,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 김한범 개인전 준우승 기록

무안군청 검도팀이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이뤘다.

무안군청은 지난 8일 경남 창원에서 끝난 2025년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7인조 단체전(유하늘·정경인·김병훈·박시원·이후성·송인준·김한범)에서 수원특례시청을 4-3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장원시청, 광명시청, 달서구청을 이기고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올 시즌 네 번째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다. 무안군청은 올 시즌 상반기에 총 6개 대회에서 단체전 3회, 개인전 1회 우승에 성공했다.

주장 유하늘이 전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팀 우승의 주역이 됐다.

김한범은 5단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한범은 용인시청 이환희와 결승에서 만나 연장 승부 끝에 0-1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5 달빛동맹교류공연 <안드레아 세니에>**

일시 : 2025-08-29(금) 19:30  
2025-08-30(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